

96. 9. 18

추석 밀린임금 고민

중소기업 사장 자살

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가위를 앞두고 경영난으로 종업원 임금을 주지 못한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17일 아침 6시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대전제3공단 안 명성전자공업사 앞마당에서 이 회사 사장 김풍현(53)씨가 2m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 걸린 나일론 끈에 목이 매인 채 숨져 있는 것을 직원 김학원(27)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

김씨는 "야간작업을 마치고 공장을 나서던 중 믹서기에 이상한 물체가 걸려 있어 가 보니 김 사장이 목이 매인 채 숨져 있었다"고 말했다.

경찰조사 결과 숨진 김씨는 자신의 회사가 지난해말부터 경영난이 심해진 데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밀린 석달치 임금 5천여만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대전/하석 기자